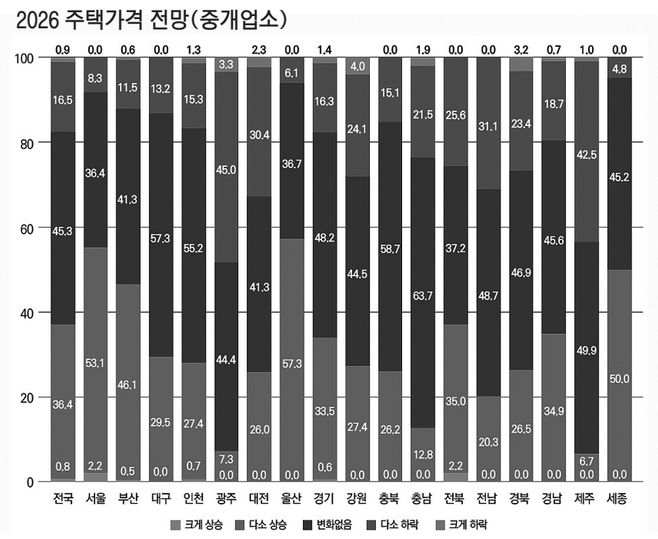
주택 매매심리 '꽁꽁'…중개업소 절반 "가격 더 내린다"



소비심리지수 광주 '94.5' 하강국면
하락 응답 48.3% 전국서 가장 많아
서울·세종 등 상승 기대 커 '온도차'

광주 주택 매매심리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소 절반 가량은 올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조사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 광주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4.5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전월(100.2) 대비 5.7p 하락한 수치로, 지난 2024년 11월(94.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전남의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2로, 전월(104.9)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보합권을 유지했다.

광주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주택전망에 대해 설문한 결과에서는 '다소 하락' 20.7%, '변화없음' 50.7%, '다소 상승' 27.3%, '크게 상승' 0.7%로 보합을 예상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중개업소 응답은 보다 비관적이었다. '크게 하락' 3.3%, '다소 하락' 45.0%로 하락 응답이 48.3%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43.5%), 대전(32.7%), 전남(31.1%) 순으로 하락 전망이 많았다.

전남 일반가구 설문조사의 경우 '크게 상승' 0.6%, '다소 상승' 21.8% 등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22.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중개업소는 '다소 하락' 31.1%, '변함없음' 48.7%, '다소 상승' 20.3%로 보합이나 하락세가 주를 이뤘다.

전국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8로 전월과 동일해 상승국면을 이어갔다.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올해 주택가격 전망에서는 '다소 상승'(43.2%)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지역별로 상승 응답이 높은 지역은 서울(61.4%), 세종(55.9%) 등이었고, 하락 응답이 높은 지역은 제주(28.6%), 경북(26.1%) 등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소에서 한 응답에서는 '변화없음'(45.3%)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상승응답이 높은 지역은 울산(57.3%), 서울(55.3%), 세종(50.0%)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사대상은 일반가구와 중개업소로 일반가구 조사는 전국 152개 지방자치단체의 6680가구를 대상으로 분기단위로 실시되며, 중개업소 조사는 전국 152개 지방자치단체의 2338개 업소를 대상으로 월 단위로 이뤄졌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코스피, 단숨에 5800 돌파…'육천피' 보인다

이틀 연속 급등 '사상 최고'
기관, 1조6000억원 순매수
美증시 하락에도 '19만전자'

지난 2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며 5800선을 첫 돌파, '육천피'를 가시권에 뒀다.

코스피는 지난 20일 전장보다 131.28p(2.31%) 오른 5808.5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19.64p(0.35%) 오른 5696.89로 개장한 뒤 우상향 흐름을 지속하다 한때 5809.91까지 치솟기도 했다.

전날 5600선을 처음으로 넘어선 데 이어 하루 동안 5700선과 5800선을 연속으로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랠리에 속도를 냈다.

기관이 1조6107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7451억원과 9861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선 5900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개인과 기관은 1179억원과 4380억원 매도 우위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0.54% 내렸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도 각각 0.28%, 0.31% 하락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0.50%의 낙폭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열흘의 협상 시한을 제시하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데다, 사모펀드 블루아울 캐피털이 일부 펀드에 대한 투자자 환매를 중단한다고 밝혀 연쇄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05% 오른 19만100원으로 거래를 종료하며 '19만 전자'를 사수했다.

SK하이닉스도 6.15% 급등한 94만9000원으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는 장 중 95만5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강세로 장을 마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8.09%), 두산에너빌리티(5.18%), HD현대중공업(4.88%), 삼성물산(3.60%), SK스퀘어(2.47%) 등이 올랐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71p(0.58%) 내린 1154.00으로 장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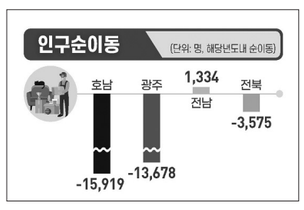
지수는 0.69p(0.06%) 오른 1161.40으로 개장했으나 직후 1147.72까지 밀리며 하락 전환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1.1원 오른 1446.6원을 나타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20대 1만5760명 떠났다…청년유출 가속

작년 호남 순유출 1만5919명
광공업·건설수주 지역 희비



지난해 20대를 중심으로 1만6000여명이 호남을 떠나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에 따르면 호남권 지역경제동향 조사 결과, 지난해 순유출 인구는 1만5919명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7172명, 2분기 3161명, 3분기 3632명, 4분기 1954명이 지역을 떠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만5760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660명, 30대 2545명 등 학업·취업으로 인한 순유출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광주 1만3678명, 전북 3575명이 각각 줄었고 전남은 1334명이 순유입됐다.

광주에서는 20대(5227명)와 30대(2807명)가 주로 지역을 떠났다.

전북에서도 20대(5439명)와 10대(591명)을 중심으로 순유출이 발생했다. 다만 전남에서는 50대(3332명)와 60대(2845명)를 주축으로 인구가 유입됐다.

인접 시군의 인구 증감 대비도 눈에 띄었다.

전남의 경우 목포시 인구는 6896명 순유출됐으나 신안(4305명)과 무안(3122명) 인구는 크게 늘었다.

이외에 전체 인구 2만7000여명인 전북 순창군(1230명)과 전남 곡성군(1097명)의 인구 유입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호남권 연간 고용률은 63.4%로 전년 대비 0.2%p 하락했다.

전남(65.6%)과 전북(63.3%)의 고용률은 각각 0.5%p씩 하락했으며 광주(60.8%)의 고용률은 0.2%p 상승했다.

광공업생산지수는 107.8로 화학제품 등 생산이 줄면서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광주는 전기장비 생산이 늘어 9.4% 증가했지만 전남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3.1%, 전북도 자동차 생산이 줄어 1.6% 각각 감소했다.

건설수주액도 전체적으로 공사 수주가 줄어 1.7% 감소했다.

광주(1조1564억원)는 53.1%, 전남(4조3841억원)은 13.5% 각각 줄었으며 전북(4조7132억원)은 건축·토목공사 수주가 모두 늘어 63.0% 증가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

광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미소금융 이자 4.5% 전액 지원

광주시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미소금융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 상환할 경우, 해당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광역시 가운데에서는 광주시와 부산시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대출이자 4.5%를 1년간 전액 지원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1억1000만원 증액한 2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소상공인 가운데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대출받은 경우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 NICE 749점 이하)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2024~2025년에 미소금융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2025년에 납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신청은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광주지역 7개 미소금융 수행기관인 광주북구법인, KB, LG, 삼성, 신한, 우리,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을 방문하거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광주시기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스템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525명의 소상공인에게 1억1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오영걸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미소금융 이자지원 사업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금융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빚투·영끌에 가계빚 1979조 '역대 최대'

주담대 7조·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4조 늘어

지난해 4분기에도 '빚투'(대출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이 이어지면서 전체 가계 빚(부채)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2000조원에 다가섰다.

증가 폭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3분기보다 줄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주식투자 수요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더 커졌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말(1964조8000억원)보다 14조원 많고,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작년 연간으로는 56조1000억원(2.9%) 증가했다. 2021년(132조8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2024년 2분기 이후 작년 4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4분기 증가 폭(14조원)은 3분기(14조8000억원)보다 줄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잔액이 1852억7000만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1조1000억원 불었다.

역시 3분기(11조9000억원)와 비교해 증가 폭은 축소됐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170조7000억원)이 7조3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682조1000억원)이 3조8000억원 각각 늘었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잔액 1009조8000억원)이 석 달 사이 6조원 불었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8000억원 늘고, 3분기 8000억원 뒷걸음쳤던 기타대출도 4분기 1조2000억원 반등했다.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잔액 316조8000억원)은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대기배출사업장 IoT 측정기 설치 추진

내달 6일까지 모집…설치비 60% 보조금 지원

광주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기배출 관련 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전류계·차압계·pH계·온도계 등 시설 가동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및 방지하는 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사업장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광주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 2억8800만원으로, 40여개 이상 사업장에 1개 시설당 최대 2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장에서 부착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60%를 광주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이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된 소규모 사업장(4, 5종)이다. 광주시는 △방지시설 면제 신청 습식시설 △2022년 5월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이전부터 가동 중인 시설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동일 사업장에 2개 이상 시설도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하다.

다만 공공기관·공공시설이나 최근 5년 이내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 5년 이내 정부 지원으로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류를 광주시 환경보전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공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한 뒤, 설치를 착수해야 한다. 이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을 검토해 정상적으로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광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